

아파트 단지내 도로¹⁾ 안전성 강화방안



김 현 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책임연구원

최근 아파트 단지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국민청원으로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점이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은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들로 아파트 단지 등 주택단지, 대학교 등 학교 구역, 주차장 구역, 산업단지 구역 등이 해당된다.

국민청원 당시 피해자 가족이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글을 게재하였고 청원에 참여한 사람도 20만명이 넘었다. 그만큼 현행 제도가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사망사고(‘17.10)**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 발생(6세 아이 사망, 어머니 중상)
-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사고 발생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 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본 기고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외 구역’의 대표적인 구역인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 현황, 문제점 및 안전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 현황

’60년대 이후 정부는 도시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현재 전국 인구의 약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아파트 단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 수〉

연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단지수	14,056	14,454	14,908	15,482

* 기준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설치 혹은 중앙(지역)난방 혹은 주상복합아파트

** 의무 : 아파트 관리자 및 의결기구(입주자 대표) 구성

1)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어서 통행료, 이동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편의상 도로로 적용함

이러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 등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찰의 사고조사 의무가 없어 공식적인 사고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사 자료²⁾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교통사고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전국의 교통사고 현황은 도로 78.2%, 도로 외 구역 16.4%, 기타 사고장소 불확실 5.3%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사 자료 교통사고 현황〉

구분	도로	도로 외 구역	기타	합계
사고건수	120만건	25만건	8만건	153만건
사고비율	78.2%	16.4%	5.3%	100.0%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 편집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주로 아파트 단지 48.7%이며 상업시설 주차장 43.5%, 학교 6.2%, 산업단지 1.6% 순으로 분석되었다.

〈도로 외 구역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학교	산업단지	합계
사고건수	12만건	11만건	1.6만건	0.4만건	25만건
사고비율	48.7%	43.5%	6.2%	1.6%	100.0%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 편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인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전체사고의 16.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절반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도로교통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 문제점

이미 국민청원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등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정지선 등 노면표시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안전시설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에 의해 설치·관리되고 있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12년부터 매년 약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하여 '17년까지 전국 266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18년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주요 문제점〉

항목	주요내용
과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 직선 및 급한 내리막, 도로폭이 과다한 구간 등에서 운전자 과속사고 발생이 우려됨 우회거리 단축을 위한 외부 자동차의 단지도로 통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과속사고 발생이 우려됨
운전자 시인성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주차장 진출·입부 및 곡선부, 장애물(건물, 수목, 옹벽 등) 등으로 인해 자동차 및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보도 및 횡단보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 미설치 및 보도 단절, 편측에만 보도가 설치된 곳 등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아 운전자, 보행자 부주의시 사고 발생이 우려됨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횡단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불법주·정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부근, 정문 앞, 상가 앞, 지하주차장 램프 등에 자동차를 주·정차하며 보행공간 침범 및 보행자와 자동차 시인성 제약, 중앙선 침범 등 충돌 사고가 우려됨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경사로에 이중주차(중립)로 미끄러지는 사고발생이 우려됨
잘못된 시설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설치 위치의 부적절,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 등으로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이 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 실수 유발
불명확한 주행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 정지선, 주행방향, 통행방법 규제,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미설치로 운전자에게 명확한 정보 미제공으로 운전자 혼란 초래
정보 인지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인지 곤란, 노면표시 및 조명시설 설치 등이 부적절하여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이 어려움
노면탈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단보도, 정지선, 주행방향, 통행방법 규제,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탈색
시설물 마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속방지턱 등이 마모되어 제기능을 하기 어려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면적 과다, 차단기 설치 위치

* 한국교통안전공단, 아파트단지 교통안전관리 매뉴얼 자료 편집

2)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자료

에는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120개 단지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속, 운전자 시인성 불량, 보도 및 횡단보도 부재, 불법 주차차, 잘못된 시설물 설치, 불명확한 주행경로, 정보 인지 곤란, 노면표시 노후화, 시설물 마모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3.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성 강화 방안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교통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보완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아파트 단지내에 적용할 교통규칙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부에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는 차와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를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 등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행자가 차에 비해 통행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사고 야기 시 운전자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외에 아파트 단지내에 최고속도제한 및 정지선 설치 등 기본적인 교통규칙의 적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통규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단속 및 계도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경찰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찰의 인력부족 및 사유지에 공권력 개입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주체 단속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공간이며 교통

약자인 보행자가 많은 공간으로 공공도로와 구별되는 구역이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특성상 교차부, 가로부, 단지 진출입부, 지상/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유형별 검토, 단지규모, 신설 및 노후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안전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안전시설 설치·관리주체를 고려하여 사례위주 형태의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맺음말

우리나라 ‘도로 외 구역’의 대표적인 구역인 아파트 단지는 현재 전국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전체 교통사고의 약 8%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의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안전시설도 법적효력이 없는 안전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 기본적인 교통규칙의 적용과 단지내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규정 및 시행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협, 2018. 5. 29.
2. 한국교통안전공단,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012-2017.
3.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4). 도로외 구역 위험 실태 및 시설운영 관리방안.
4. 한국교통안전공단 (2014). 아파트 도로안전관리 매뉴얼.
5.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www.kosis.kr.